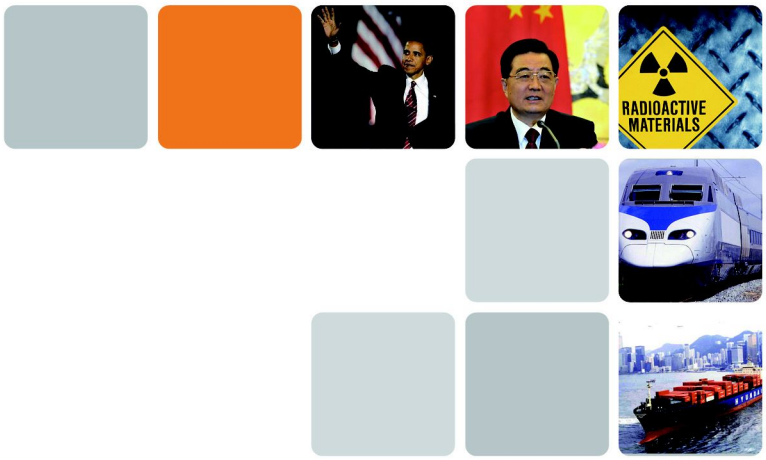
社內限
2011-03

Trust Talent Tenacity Togetherness

HRI 체어퍼슨노트

CHAIRPERSON NOTE

2011.01.24 (통권333호)



경제이슈

美 주택경기 침체속 개선 전망
시중금리 상승세 지속

경영노트

기업과 사회가 가치를 공유하는 법

사회 트렌드

클린턴의 '타운홀 미팅'

저널 브리프

사자성어로 본 신묘년 한국경제

洗心錄

반구제기(反求諸己), '자기반성'의 중요함

現代經濟硏究院
HYUNDAI RESEARCH INSTITUTE

경제이슈

□ 美 주택경기 침체속 개선 전망

■ **미국 상무부가 1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12월 신규건축허가건수는 전월대비 16.7% 증가**

- **신규주택착공** : 12월 미국의 신규 주택착공건수는 연율 기준 52만 9천 건으로 전월 55만 3천 건에 비해 4.3% 감소하였으며 전년 동월비 대비 8.2% 감소
- **신규건축허가** : 반면 12월 미국 신규 건축허가건수는 연율 기준 63만 5천 건으로 전월대비 16.7% 상승하여 2008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세를 기록

■ **12월 신규주택착공이 전월대비 감소하여 미국 주택경기가 여전히 침체국면에 머물고 있으나 신규건축허가건수가 전월대비 큰 폭 증가하여 향후 주택경기에 대한 긍정적 신호로 작용**

□ 시중금리 상승세 지속

■ **시중금리는 국내 경기회복 기조 지속, 물가 상승 및 글로벌 금리 상승세 등에 힘입어 지속적인 오름세**

- **국고채 금리(3년물)** : 전날보다 0.02%p 상승한 3.81% 기록하며 2010년 12월 7일 2.89%로 사상최저치를 기록한 후 한달반새 1%p 급등
- **국고채 금리(5년물)** : 전날보다 0.01%p 상승한 4.35%를 기록하며 2010년 12월 7일 3.86%를 기록한 후 한달반새 0.5%p 급등
-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 : 91일물 CD 금리는 전날보다 0.02%p 상승한 3.0%를 기록하며 2009년 1월 14일(3.02%) 이후 연 3%대 진입

■ **한국은행이 지속적인 물가상승에 대응하여 추가적으로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중금리는 당분간 상승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기업과 사회가 가치를 공유하는 법[1)]

■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면서 경영 환경에서의 위협이 커지고 있지만 오히려 이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는 기업들도 있음**

- 최근 자본주의가 환경, 사회, 경제적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비난이 커지는 동시에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수많은 법률적 제약이 생김
- 하지만 GE, 네슬레 등 일부 기업들은 사회와 공유 가치를 만들어내면서 제약을 극복하는 동시에 더 큰 성장의 기회로 삼고 있음

■ **기업은 가치 창출이 사회의 번영과 일치하도록 하는 가치 공유를 통해 새로운 수요, 더 큰 시장, 지속가능한 이익을 만들 수 있음**

- 기업과 사회의 가치 공유는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로 기업 성장이 사회 번영을 가져오는 선순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이익을 만들 수 있음
- 이는 또한 기업에게 일회성의 자선사업보다 효과적이며,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제품과 수요를 창출하여 경쟁우위를 갖추는 것이 가능

■ **기업과 가회가 가치를 공유하는 방법에는 상품과 시장의 재인식, 생산성의 재정의, 클러스터를 통한 가치 공유 등이 있음**

< 기업과 사회가 가치를 공유하는 법 >

	내 용
상품과 시장의 在인식	●경제가 발전할수록 시장은 소비자의 욕구와 사회적 가치를 모두 충족하는 상품을 요구하게 되어 기업은 상품/시장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 ●인텔, IBM은 기술 혁신을 통해 개발한 절전 제품, GE는 전사적 장기 전략(Ecomagination)을 통한 친환경 제품의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생산성의 在정의	●기업 내 가치사슬과 사회적 가치는 깊은 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가치사슬의 생산성 향상이 사회적 가치 증진과 일치되도록 만드는 혁신이 필요 ●막스앤스펜서의 우수한 공급망은 수송의 에너지 절감 혁신에서 만들어졌으며, 다우케미컬은 물 사용의 절약 기술 개발을 통해 연간 400만 달러를 절약 ●유니레버는 인도 소외 여성들을 중개업자로 교육시켜 4.5만 명의 유통채널을 확보했고, 존슨앤존슨은 직원 건강프로그램 시행으로 건강관리 비용을 절감
클러스터 통한 가치공유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는 기업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 공급 및 유통과 관련된 다른 기업들, 관련 기관, 지역 사회와 가치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함 ●네슬레는 낙후된 커피 농장 지역에 농업기술, 금융, 물류 기업을 모아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농민에게 지속적인 지원과 교육으로 높은 품질의 원료를 생산

1) 본 자료는 'Creating Shared Value(Harvard Business Review, 2011. 1)'를 요약 정리함

□ 클린턴의 '타운홀 미팅'[2)]

■ **클린턴 美 국무장관이 해외에 나갈 때마다 '타운홀 미팅'(townhall meeting)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주목을 받고 있음**

- 즉 해당 국가의 정치인, 기업인, 대학생 등과 만나 의견을 교환하는 일정이 빠짐없이 포함되고 있음

■ **타운홀은 동내 공회당을 뜻하는데, 이곳에 삼삼오오 사람들이 모여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누는 소규모 모임이 타운홀 미팅임**

- 타운홀 미팅의 특징은 일방적으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참가자들도 비교적 자유롭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임
- 허심탄회한 대화가 이뤄지는 게 중요할 뿐 회합의 특별한 규칙도 존재하지 않음

■ **타운홀 미팅이 클린턴이 주도하는 미국의 새 외교정책 상징으로 등장하고 있음**

- 지난달 말 클린턴은 美 국무부에선 처음으로 4개년 외교·개발정책 검토보고서(QDDR)를 발표
- '클린턴 독트린'이라고 부를 만한 이 보고서의 핵심은 미국 외교관들이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 사이의 벽을 허물고 서로 협력해야만 전 세계의 각종 현안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판단에 있음
- 클린턴은 QDDR을 발표하며 美 외교관들에게 "해당국 외교부의 담당자뿐 아니라 시골의 부족 어르신도 만나라. 줄무늬 정장 양복뿐 아니라 카고 팬츠도 입어라. 나부터 앞장서겠다"고 말함
- 타운홀 미팅이 이런 신외교정책을 구체화할 최적의 방안 중 하나로 각광받게 되었고, 실제 QDDR 발표 행사도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됨
- 1월 초 클린턴은 국무부 직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QDDR은 변화의 청사진일 뿐 이를 현실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타운홀 미팅과 지역행사 참석 등을 통해 타 부처 공무원, 민간영역 사람들을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라"고 조언

2) "클린턴 '타운홀 미팅' 미 외교 필수 코스 된다"(중앙일보 2011.2.24) 참조

□ 사자성어로 본 신묘년 한국경제[3)]

■ **2011년에는 토끼처럼 빠른 속도로 각종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고되고 있어 상황을 주도면밀하게 살펴 대처하는 유연성이 요구됨**

① **국내 경제, 오리무중(五里霧中:무슨 일을 알 길이 없다)**

· 2011년에는 유가 및 원자재가 불안, 선진국 재정 위기 우려, 중국경제의 불확실성 등 대외변수가 유난히 많고 방향성 잡기가 어려워 경제전망에 연연해하기 보다는 위기관리에 힘써야할 것임

② **국제 경제, 배도이치(背道而馳:방향과 목표가 상반되다)**

· 2011년 미국과 유럽은 경기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중국 등 신흥국 경제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긴축 정책을 펼치면서 선진국과 신흥국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전망에 따라 각국은 주요 거시 정책의 이행 속도와 강도 조절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임

③ **부동산, 개화만발(開花滿發:꽃이 활짝 피다)**

· 경기회복이 확실시되면서 최근 들어 부동산 매매가가 상승하고 있으며 별다른 일이 없다면 부동산 시장은 상승세를 지속할 것임

④ **증시, 토영삼굴(兎營三窟:영리한 토끼는 위기를 대비한다)**

· 국내 선행지수가 상승세로 반전하고 기업의 이익 규모는 사상 최대를 기록함에 따라 2011년의 증시전망은 대체로 긍정적이나 인플레이션에 대비할 필요는 있음

⑤ **SNS, 외뇌혁명(外腦革命:두번째 뇌가 지혜를 쏟아낸다)**

· 2011년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대중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며 기업들은 SNS에 대한 경험을 부지런히 축적하고 SNS를 통해 소비자와의 관계를 강화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음

⑥ **스마트 경영, 숙아유쟁(熟芽遺爭:싹은 키웠지만 쟁점은 남았다)**

· 아이팟으로 대표되는 스마트디바이스가 확산되면서 스마트 경영과 스마트 워크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 때문에 2011년에는 스마트 워크를 뒷받침하는 제도, 인프라 및 업무프로세스를 정비해야 할 것임

3) "토끼처럼 영민하고 빠르게"(이코노미스트, 2011.1.11) 참조

洗心錄

□ 반구제기(反求諸己), '자기반성'의 중요함

자기반성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사자성어가 바로 '반구제기(反求諸己)'다. "도리어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다", "자기반성이 우선이다"라는 뜻을 지닌 글귀다.

> '어질다'고 하는 것(仁)은 활 쏘는 것과 같다. 활을 쏠 때는 자세를 바르게 한 후에 쏘는 법이다. 화살이 과녁에 맞지 않으면 자기를 이긴 자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맞지 않은 이유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다.** (仁者如射 射者正己而後發 發而不中 不怨勝己者 **反求諸己**而已矣, -『孟子』「公孫丑 上」-)

신영복 선생은 그의 저서『강의: 나의 동양고전 독법』에서 '반구제기'를 하나의 세계관이며 생명운동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일상의 크고 작은 실패에 직면하여 그 실패의 원인을 내부에서 찾는가 아니면 외부에서 찾는가에 따라 어떤 일이나 계획의 과정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이다. 모든 운동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가 아니면 내부에서 찾는가에 따라서 세계관이 달라지기도 하며, 개인이든 국가든 자기반성이 자기합리화나 자위보다는 차원 높은 생명운동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신묘년 새해가 시작되었다. 새해 벽두에는 누구나 이런 저런 계획을 세우고 다짐을 한다. 건강과 재테크 관련된 것이기도 있고 회사의 영업목표와 관련된 것도 있다. 작심삼일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연초에는 작심평생의 각오로 시작한다. 새해에 굳은 각오로 시작한 일들이 잘못되었을 경우 남이나 주변 환경을 탓하면서 자위하고 넘어가 버리면 그야말로 남는 게 없다. 자기 잘못을 되돌아보면서 기필코 성공하기 위해 재도전한다면 처음에는 실패했더라도 두 번째에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하는 신묘년이 되기를 기원해본다.

> 현재의 나는, 과거 내가 상상한 바로 그 모습이다.
>
> – 커트 보네거트 2세 –